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부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1남, 1·2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1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각 선교회와 기관은 당회 준비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대림절 장식을 합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사전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14일(토) 오후 3시, 입교교육은 21일 오후 3시입니다.

2014년 교우전화부를 만듭니다. 번호가 바뀐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2:1~5 / 시 122
롬 13:11~14 / 마 24:36~44

출 21:1-11

식 당 봉 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박경원 허정호 박미연 조순덕 김정우
다음 주 식당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혜령 이용숙 최희영 신연화 유명남 김정민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4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움을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어봅니다. 그릇되고 삳된 마음을 다 비워내고 바르고 선한 것으로만 마음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모실만한 마음의 구유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찾아와 주십시오. 전쟁과 분쟁, 재해와 기아에 고통 받는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십시오. 모두가 평화를 갈구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는 세상,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힘든 이 세상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참된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모든 이의 마음의 보좌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광상준 최경미 권채영 권혁순 박해경 김경혜 김기석 김희우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성우 박유경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윤수
 김정진 김주영 김지윤 김혜권 박재임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노성희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병구 박옥식 박인혁 방극숙
 배삼순 성지현 송형운 하미림 시시권 백경임 안세진 우순덕 이광섭
 이봉옥 이우원 옥귀희 이종배 고정림 이진영 한양미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장원호 박성희 전인섭 정복순 정종삼 정현모
 조순덕 최미자 최종원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상균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한훈식 홍선희 홍순구 안홍숙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김신실 김인석 이선화 김진중 김필순 문홍일 이미혜 박병구 베틀한복
 송형운 하미림 우순덕 원주신 이원재 염보미 이재문 조관행 홍선희
 차혜심 한인철 한창희 무명6

생일감사헌금 송양진

녹색꿈헌금

오미경 이종우 장윤지 이진영 한양미 무명1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장혜숙
노순옥	박성희	박성희	노순옥
김재흥	최경미	차혜심	정복순
장영숙	신영신	신영신	박정숙
정경례	진정숙	정경례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권미숙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이형숙	윤수진	이형숙	윤미경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김명희
정영선	서정순	정영선	김홍춘
박해경	조항미	박해경	홍임창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광상준		
장영숙	김세진		

하늘 골목

- 손택수

성당의 종소리가 노을 속으로 퍼져나가면
빈 도시락통을 딸랑거리며 돌아오시던 어머니,
어린 누이들과 함께 기다리던 골목은
정미 많아서, 처마와 처마가 사이좋게 이마를 맞대고 있었지
어린 우리들 시장기처럼 늘 허기가 저 있던 골목이지만
창문에서 뻗어 나온 팔이 맞은 편 팔을 향해 국수 그릇을 건네면
김이 식지 않도록 후루룩 하늘도 몇 젓가락씩 받아먹던 골목
처마와 처마사이로 길을 낸다는 건 좁은 창문으로 금방 부친 전을 주고
받고/ 멀리서 온 짐꾸러미를 대신 받아 주기도 하면서
내 것이 아닌 채취도 조금씩 품고 살아보자는 것이었을까
다섯 살 겁 많은 시골 아이를 받아준 문현동 옛집
상처투성이 보르크와 벽과 벽 사이로 빨랫줄이 내걸리던 골목
더러는 아버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탁자를 사이에 두고 국수를 들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이마가 부딪치지 않는 딱 그 거리만큼씩 떼어놓는 사이는 있었으니
어쩌면 그 사이를 지키지 위해 집들은 들썩이는 슬레이트 지붕마다 돌을
얹어놓고/ 바닷바람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을까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누이들과 나는 그 사잇길에 앉아 하늘을 우러르길 좋아하였다
넓지만 한 하늘도 이 가난한 마을에 이르러서는
처마와 처마 속에 끼어 좁장한 골목처럼 풀어져 구불거리곤 하였으니
골목 따라 오는 별을 헤아리듯 어머니를 기다리던 시간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주님을 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구원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 속에서 허둥댈 뿐 주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시길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남, 1·2여 선교회 주관 예배 설교 : 신진식 전도사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이진영 집사 김문주 집사

12	영접위원	방문성 김정은 김현동 오유경 이해령 박시내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 성찬으로 초대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회 중 :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 시작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저희의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회 중 :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집례자 :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 하셨고 새로운 빛을 보내시어 새 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회 중 :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창조의 새벽과도 같은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함께 :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성도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 성찬 제정사 / 집례자

● 성령 임재의 기원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 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시어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주십시오.

회 중 :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주십시오.

● 영광 찬양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회 중 :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집례자 :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회 중 :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집례자 :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 중 :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집례자 :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니.

회 중 : 아멘.

● 평화의 인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성도와 인사)

● 분병례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 아멘.

● 분급 / 집례자와 보좌

(앞으로 나와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후 자리로 돌아가 앉아 모두가 성찬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도한다)

집례자 :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회 중 : 아멘.

● 성찬 후 감사기도 / 다함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주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